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앞으로의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 주관예배입니다. 2남, 3·4 여성교회가 주관합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7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재형 씨와 임고운 씨가 7월 9일(토) 오후 1시 청파교회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담임목사의 산문집, 「일상순례자」가 웅진뜰에서 나왔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복장을 간편하게 입고 냉방장치 이용을 줄이십시오.

식 당 봉 사 : 박혜경a조항미 김윤정 이은주 김민화 김정우 백묘현
 7/17,24 식당봉사 : 고숙이 최현옥 이준림 서정순 오송경 조관행 김필순
 오늘설거지봉사 : 신인경 이세민 박은혜 강지은
 다음 주 설거지 : 이건식 신영신 안 현 서수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와 후텁지근한 날씨로 몸과 맘이 지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해보지만 이내 나태와 무의미의 세계에 빠져드는 우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기를 머금고 활기차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타는 목마름으로 희망과 정의를 갈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람됨을 지키기 위해, 생명 세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날마다, 밤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이 되어 주시고 크고 강한 손으로 그의 몸과 맘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사40:30,31 인도자
- ♣ 교 독 문 85. 요한1서 4장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김재흥 목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66(통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함께
- ♣ 성경봉독 I. 마11:25-30 조지연 선생
 II. 요15:11-15 문영혜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집꾼 예수 김재흥 목사
 II. 자기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 김기석 목사
- 거둠기도 다함께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김윤수 박상호 김중수 이순정 박규석 박경선 박병구 김정애
 방민 방준서 수진 임고운 임승동 백해숙 정복순 조관행 홍선희
 정연희 박홍재 김희진 전희수 김지호 전해리 이영우 오진훈 노순옥
 무 명

월정헌금:

권혁신 김문주 김종철 고영애 김지윤 김현주 박범희 박미영 왕수명
 유지은 이동천 이봉옥 이유선 방극숙 이정은 김성은 정은선 이건식
 신영신 이지훈 문홍일 이미혜 정원석 김현영 허준호 이경남 이영우
 LK

감사헌금:

문희창 윤정덕 구성실 오현창 박창운 허정운 홍순구 안홍숙 최선미
 유상진 유은정 홍성식 이유리 무명

녹색꿈헌금:

백해숙 김기석 김희우 무명

	장 해 숙	백 해 숙	박 영 희	조 순 덕
	노 순 옥	정 경 레	배 부 레	정 경 레
	임 정 자	최 경 미	최 경 미	임 정 자
	문 영 혜	이 명 희	이 명 희	김 진 경
	안 정 숙	진 정 숙	문 금 석	진 정 숙
	박 홍 재	곽 권 희	김 순 복	백 묘 현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홍 복 선
	이 순 정	김 금 순	김 금 순	이 순 정
	이 형 숙	권 미 숙	권 미 숙	이 형 숙
	안 홍 숙	오 현 정	오 현 정	안 홍 숙
	정 영 선	이 현 숙	송 양 진	김 희 우
	이 영 란	박 미 영	윤 정 화	야 외
	박 해 경	조 향 미	이 기 분	심 상 숙
	김 재 흥	오 자 영	교 회	교 회
	김 기 석	이 건 식	교 회	교 회

마음으로 읽는 글

땡별

손광세

7월이 오면/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의 변두리쪽
허름한 완행버스 대합실을/ 찾아가고 싶다

죽이 다 된 캐리멜이랑/ 다리 모자라는 오징어랑
구레나룻 가게 주인의/ 남도 사투리를 만날 수 있겠지

함지에 담긴 옥수수 몇 자루랑
자불자불 조는 할머니/ 눈부신 낮꿈을 만날 수 있겠지

포플린 교복 다림질해 입고/ 고향 가는 차 시간을 묻는
흑백사진 속의 여학생/ 잔잔한 파도를 만날 수 있고

떠가는 흰 구름을 바라보며/ 행려승의 밀짚모자에
살짝 앉아 쉬는/ 밀잠자리도 만날 수 있겠지

웃옷을 벗어 던진 채/ 체인을 죄고 기름칠을 하는
자전거방 점원의/ 건강한 웃음이랑

오토바이 세워 놓고/ 백미러 들여다보며 여드름 짜는
교통 경찰관의/ 초록빛 선글라스를 만날지도 몰라

7월이 오면/ 시멘트 뚫고 나온 왕바랭이랑
쏟아지는 땡별 아래/ 서 있고 싶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503(통373).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다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기라는 감옥에서 나와 사랑의 세계,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십시오.	
다함께 :	아멘. 편협한 자아의 감옥에 갇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받을 사랑보다는 베풀어야 할 사랑을, 쾌락적인 기쁨보다는 보람찬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벗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주관 예배 2남, 3·4여선교회	7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최문희 선생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전총길 집사

7월	영접위원	한상의 허호범 윤성종 최숙화 박성실 김윤정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돌멩이국

복, 록, 수, 세 스님이 산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고양이 수염과 해님 빛깔과 남에게 베푸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어. 나이가 제일 어린 복 스님이 셋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수 스님에게 물었지. “스님,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요?” “어디, 함께 알아보자.”

저녁 종소리가 울리자 스님들은 멀리 산 아래 마을 지붕 위로 눈길을 돌렸어. 너무 높은 데서 내려다보았기 때문에 그 마을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알 길이 없었지. 가뭄에 홍수에 전갱까지 겪은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쳐서 낯선 사람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어. 낯선 사람은 커녕 이웃끼리도 서로 의심하며 살게 되었지.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 그러나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지. 농부에, 장사꾼에, 학자에, 가정부에, 의사에, 목수에...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살았지.

스님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들어가 버렸어. 성문 밖에 나와서 스님들을 맞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 스님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모두들 창문을 꼭 닫아 버렸어. 스님들이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어. 그러나 대답은 없고 집 안에 불만 꺼졌지. 두 번째 집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 스님들은 이집 저집 닫혀 있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 “이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가 봐.” 스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 수 스님이 달덩이처럼 환한 얼굴로 말했지. “그렇다면 오늘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멩이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하자.”

스님들은 불쏘시개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웠어. 불 위에 작은 냄비를 걸고, 샘에서 물을 길어다 냄비에 부었지. 스님들이 하는 일을 아까부터 지켜보던 용감한 소녀가 다가와서 물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록 스님이 말했지. “뽕감을 모으고 있단다.” 복 스님이 말했지. “불을 피우고 있단다.” 수 스님이 말했지. “돌멩이로 국을 끓일 참인데, 동글납작한 돌멩이 세 개가 필요하단다.”

소녀가 스님들과 함께 안마당을 돌아다니며 돌멩이 세 개를 주웠어. 그러고는 그것을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한 거야. 수 스님이 말했어. “이제 이 돌멩이들이 맛있는 국으로 될 게야. 그런데 냄비가 너무 작아서 탈이군.” 소녀가 말했지. “우리 집에 큰 솥이 있어요.” 집으로 달려간 소녀가 솥을 굴러 내가는데, 엄마가 무슨 일이나고 물었어. “스님들이 돌멩이로 국을 끓이는데 솥이 있어야 한 대요.” 엄마가 생각했지. ‘흠, 흔해 빠진 돌멩이로 국을 끓여?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 뉘야겠군.’

스님들이 피운 불에서 연기가 솟아오르자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어.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솥을 걸고 불을 때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지! 사람들은 하나씩 돌씩, 돌멩이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보려고 밖으로 나왔어.

복 스님이 말했지. “옛날부터 돌멩이국에는 소금하고 후추를 넣어야 제맛인데.....” 록 스님이 돌멩이와 물을 가득 채운 커다란 솥을 저으며 대꾸했어. “그래, 맞아.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없으니.....” 호기심으로 눈을 크게 뜨고서 학자가 말했지. “소금하고 후추는 우리 집에 좀 있네.” 잠시 사라졌던 학자가 소금에 후추에 다른 양념 몇 가지를 가지고 돌아왔어. 수 스님이 맛을 보면서 말했지. “지난번에 국 끓일 때는 당근을 넣어서 맛이 달콤했는데.” 그러자 등 뒤에 서 있던 아낙이 말했어. “당근? 당근이라면 우리 집에 조금 있어요. 기다려요.” 아낙은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서 당근을 한아름 가져와 솥에 넣었지. 복 스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어. “양파를 넣으면 더 맛있겠지요?” “그럼! 양파가 들어가면 맛이 그만이지.” 농부가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사라졌다가, 커다란 양파 다섯 개를 가져와 솥에 넣으며 말했지. “자, 이제 맛있는 국이 되겠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 냄새가 그럴싸하게 나기 시작했거든. 수 스님이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 “버섯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몇 사람이 입맛을 다시다가 달려가서, 신선한 버섯에 국수에 완두콩에 배추까지 들고 돌아들 왔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기 것을 내놓자 다음 사람은 더 많이 내놓았어. 그래서 국은 건더기가 많아졌고 맛도 훨씬 더 좋아졌지. 마을 사람들이 앞 다투어 말했어. “고기만두가 들어가면 더 맛있겠지?” “두부도!” “강낭콩에 감자에 시금치도!” “토란 뿌리하고 호박!” “마늘!” “부추!” “생강!” “간장!” “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있어!” 하고 말하며 달려가서 한아름씩 안고 돌아왔지. 스님들이 솥을 젓자 국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우와, 냄새! 맛있는 돌멩이국 냄새!

이윽고 국이 다 끓었어. 마을 사람들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데, 누구는 밥을 가져오고 누구는 떡을 가져오고 또 누구는 과자를 가져왔어. 환하게 등불을 밝히고 차도 함께 마셨지. 모두 자리에 앉아 함께 먹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마을 잔치가 벌어진 거야. 음식을 먹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림자 연극도 보고 노래도 부르면서 밤 깊도록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지. 마을 사람들은 잠갔던 문을 열고, 스님들에게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 파스한 봄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버드나무 그늘에 모여 세 스님을 배웅했어. 스님들이 말했어. “하룻밤 잘 쉬고 가네요. 고맙습니다. 모두들 마음이 넉넉한 분들이예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지.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 너그러워졌답니다. 서로 나누면 모두가 넉넉해진다는 걸 스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스님들이 한마디 덧붙였어. “행복해지는 것은 돌멩이국 끓이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이지요.” - 존 무스, 『돌멩이국』 전문